

위하여 진정한 거주함의 의미로서 ‘정주함’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주거와 관련된 연구, 주거의 계획과 건설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행되었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주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의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은 인간과 사물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식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 주위의 사물만을 연구하는 것도 아닌,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기법은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할머니 여섯 명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에서 2002년 4월까지 면담하였다. 면담 내용은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본사항들과 주거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주거경험에 대한 면담은 장소와 장소성의 형성요소²⁾와 스프레들리(J. P. Spradley)의 사회적 상황의 서술을 위한 9개의 차원³⁾을 바탕

2) 이석환은 의미 복합체로서의 장소가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 사건이나 활동, 물적 국면(물적 환경, 감각 국면), 시간적 국면, 심리적 국면, 의미적 국면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석환(1998), “장소추구의 기제와 내부공간 사용자의 장소추구 양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4권 10호, pp.73-83.

3) 스프레들리(J. P. Spradley)는 모든 사회적 상황을

으로 연구자가 재정리하여 공간적 측면, 생활과 관련된 측면, 시간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심리적·상징적 측면의 다섯 측면으로 나누어 면담하였다.

III. ‘정주함(定住, Dwelling)’의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주함(定住, dwelling)’의 개념은 하이데거(M. Heidegger)를 비롯한 현상학자들이 거주(dwelling)와 대지에 뿌리내림(rootedness)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존적 거주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주함의 의미라기보다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주’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구분하고 현상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주’, ‘정주함’, ‘정주처’, 등의 용어는 실존 현상학적 의미의 ‘거주’현상 그 자체와 그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IV. ‘정주’경험의 분석

면담에 의해 추출된 여섯 노인들의 특성과 ‘정주함’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61세의 가정주부로 총 열한 번의 주거경험이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장소, 행위자, 활동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양상에다 질문과 관찰을 이끌어줄 6개를 더 분별하여 ①공간, ②행위자, ③활동, ④물건, ⑤행동, ⑥사건, ⑦시간, ⑧목적, ⑨감정이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차원을 가진다고 하였다.

J. P.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1980).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110-111.

잠시 거쳐 가는 집으로 생각하며, 1982년부터 12년 정도 살았던 서울 송파동의 ㉠아파트가 이 할머니가 정주하는 주거로 나타났다.

이 할머니가 과거의 주거에 애착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조용한 주거환경, 한 가족 같은 특별한 이웃사람, 12년의 오랜 거주기간의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조용한 주거환경은 그 이전에 소음에 시달린 경험 때문이며, 특별한 이웃사람은 당시의 자신에게 일어나 힘든 사건과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만족이 당시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도록 만들었고, 또 오래 살게 될수록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어 '정주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과거주거에 대해 애착을 가지며, ②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③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④확고한 주거관을 가지고 있으며, ⑤환경 개선에 적극적이며, ⑥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미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2. B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60세의 가정주부로 총 아홉 번의 주거경험이 있었다. 이 할머니가 중요하게 언급한 주거경험은 네 번에 걸친 셋방살이 후에 처음으로 소유한 대구의 범어동의 단독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1974년에 직접 건축하여 약 8년간 거주한 주택으로, 비교적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이 진행되면서 이 할머니의 진정한 '정주처'는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 할머니에게 범어동의 단독주택은 '최초의 내 집 마련'의 의미와 자녀들의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거경험으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뿐 본인이

가장 좋은 삶을 영위한 주거는 현재의 아파트라고 하였다.

이 할머니가 현재의 아파트에 애착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성장함으로서 가족들 뒷바라지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아 실현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14년의 긴 주거 기간동안 매일의 일상을 함께 보낸 친밀한 이웃관계를 꼽았다. 이것은 자녀들의 성장기에서부터 현재까지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의 누적에 의한 '정주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현재 주거 애착형이며, ②주어진 주거환경에 순응하는 형이며, ③자아실현행위를 통해 주거정체성을 확립하며, ④자연 요소에 대한 추구하고 아쉬움이 크며, ⑤보편적인 삶의 시간성에 의한 의미부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3. C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63세의 가정주부로 총 여섯 번의 주거경험이 있었다. 이 할머니는 주택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기억은 많이 회피해져 있었지만 주거경험에 대한 좋고 싫음의 구분은 명확하였다. 주거경험 중 이 할머니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과거의 주거경험은 1970년에 5년간 살았던 쌍문동의 단독주택에서의 경험과, 현재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강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주택의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의 차이에 의한 비교라든지, 선호의 우위를 매길 수 없었다. 두 개의 주거경험에서 '정주'하게 만드는 요인 역시 같았는데 주택의 따뜻함과 양지바름, 그리고 친밀한 이웃관계를 꼽았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과거·현재 주거에 동시에 애착을 가지는 형이며, ②

대체로 주거환경에 순응하는 형이며, ③이웃 관계를 중요시 하며, ④청소와 같은 주거 관리행위를 통해 주거정체성을 확립하며, ⑤주거환경에 대한 특징적인 요구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D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74세의 가정주부로 총 네 번의 주거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직접 지어서 살았던 논현동의 2층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택이자 가장 애착을 가지는 주거경험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주거는 논현동 주택이 아니라 현재의 아파트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늘 도둑에 대한 불안과 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었다. 이 할머니가 현재의 아파트에 애착을 가지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평생 지속되어온 경제적 여유와 가족에 대한 만족, 아파트의 공간구조에 따른 방어성과 주택관리의 편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단독주택에서 경험했던 도둑에 대한 불안함과 주택관리의 어려움에 비해 현재의 아파트가 큰 만족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의 방어성에 대한 만족은 과거의 주거에서 있었던 몇 차례의 침입사건에 의해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현재 주거 애착형이며, ②실리적 주거관과 이상적 주거관이 공존하며, ③주택의 내·외부 영역 구분이 강하며, ④주거의 방어성에 가장 민감하며, ⑤개인과 가족 중심적인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5. E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83세의 독거노인으로 총 주

거경험 횟수를 알 수 없었으며, 북한의 개성이 고향인 전형적인 실향민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할머니는 여섯 명의 사례들 중 가장 연령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이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휘말려 있었다. 그러한 탓에 결혼 전까지 살았던 어린 시절의 개성의 고향집이 이 할머니의 '정주처'가 되며,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6.25 전쟁때 남북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의 부재가 이 할머니가 과거 고향집에 '정주'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할머니에게 있어 이 고향집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나 좋았던 시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판단을 앞서는 주거에 대한 절대적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과거의 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은 주거의 범위가 고향집뿐만 아니라 고향 전체로 확장되어 표현되었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과거 주거 애착형이며, ②절대적인 주거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③자신의 주거라고 인식하는 영역이 고향 전체로 확장되었으며, ④가족에 의한 보호와 안정의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6. F할머니의 경우

이 할머니는 65세 가정주부로 몇 년 전까지 자신의 사업을 하였으며, 총 네 번 정도의 주거경험이 있었다. 사업의 도산으로 인해 노년이 될 때까지 일궈온 사업체와 27년을 살아온 주택을 빼앗기게 된 것은 단순한 부와 주택의 상실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 보였다. 이 할머니의 '정주'의 대상이 되는 주거는 2년 전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오기 바로 이전에 27년 동안 살았던 단독주택이다. 거주기

간에서도 비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동기 또한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주택을 빼앗긴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가 과거의 주거에 '정주'하게 만든 요인은 오랜 거주기간과 과거 주택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의 '정주함'의 특성은 ①과거 주거 애착형이며, ②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이며, ③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④주택을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며, ⑤사회생활로 인해 주거의 지리적 영역은 작으나 생활의 지리적 영역은 가장 크다.

V. '정주함'의 본질

여섯 할머니의 주거경험을 통해 밝혀진 '정주함'의 본질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정주하는 주거는 이상적 주거의 상(象)과는 다르며, ②'정주함'은 주거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③자신의 주거 내에서 제일 안전과 보호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며, ④자신의 주거환경에 가장 익숙하게 되어, 자신의 가장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며, ⑤'정주함'은 각각의 거주자에게 맞춰진 주거환경의 적절함을 필요로 하며, ⑥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수고스러움도 필요로 하며, ⑦일상과 비일상, 긍정적·부정적 사건들이 교차되며 쌓인 시간에 의한 깊이가 필요하며, ⑧거주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을 필요로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진정한 거주로서의 '정주함'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진 주거에 관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주거관념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의 주거에 관련된 연구와 계획·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편일률적인 주거의 개발과 공급은 피해야 한다.

둘째, 생활의 무조건적인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주거계획은 피해야 한다.

셋째,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웃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거주자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거주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주거내부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언제든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앞으로의 인간 중심적인 주거계획과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주거관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측면으로 편중되어 있던 주거연구의 경향을 벗어나, 진정한 거주란 무엇인가를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밝힘으로서, 주거관념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손세관(1990), "주거의 의미에 대한 현상

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6권
2호, p.43.

2) 이석환(1998), “장소추구의 기제와 내부 공
간 사용자의 장소추구 양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4권 10호,
pp.73-83.

3)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
관찰 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110-111.